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7p, 중고선가 지수 88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7p, 중고선가 지수는 88p로 전주와 동일함. 현대미포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Bahri로부터 50,000DWT급 탱커 10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납기는 2022년 1분기로 알려짐. 2020년 전세계 누적 발주량은 357척이며,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했다고 보도됨. (Clarksons)

Bahri inks \$410m MR tanker order at Hyundai Mipo

현대미포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선사 Bahri로부터 50,000DWT급 MR탱커 10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가는 4,100만달러이며 선박 인도는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도됨. 추가 옵션분은 없다고 알려짐. (TradeWinds)

사우디, 개방형 스크러버 금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영해 내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보도됨. 폐쇄형으로 개조 공사를 하지 못한 선박은 IMO2020기준에 부합되는 추진엔진을 사용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보도됨. 2020년 1월에는 파키스탄이 카라치항 내에서 스크러버의 세척수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말레이시아가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Golar talks to yard about cost of FLNG newbuild

Golar LNG가 익명의 조선소와 Mark 3 FLNG에 대한 건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됨. 해당 Mark3 신조선 컨셉은 더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FLNG를 건조하는 방향이라고 알려짐. Upstream의 지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선소는 삼성중공업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도됨. (Upstream)

North American E&P bankruptcies could climb to more than 150 by 2022: report

Rystad Energy 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150개 이상의 북미 Shale업체들이 파산위기에 놓일 전망이라고 보도됨. 2020년 현재까지 32개의 업체들이 채무구조조정(reorganisation) 계획을 공시했으며 올해 남은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29개 업체들이, 2021년에는 68개, 2022년에는 57개 이상의 업체들이 파산위기에 놓일 전망이라고 보도됨. (Upstream)

Scorpio, 스크러버 개조공사 연기

Scorpio Group은 지금까지 계획했던 스크러버 개조 공사를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함. 해당 선박은 모두 33척에 달한다고 보도됨. 일각에서는 아예 이들 선박의 개조공사가 전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됨. Scorpio Group은 33척의 개조공사를 연기할 시 8천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단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